

직장인 약 80% “회사 옮겨 봤다”

직장인 77.2%가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813명을 대상으로 ‘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직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높았는데 ‘9년차’(87.5%), ‘10년 이상’(85.3%), ‘4년’(83.3%), ‘8년’(81.8%), ‘5년’(81.7%), ‘7년’(80.8%) 등의 순이었다. 1년 미만의 연차도 이직경험이 절반 이상인 59.9%나 됐다.

이직을 한 직장인들은 평균 3회 이상 이직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직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는 ‘연봉’(49.8%, 복수응답)과 ‘낮은 수준의 근무 환경’(45.1%)이 손꼽혔다. 이어 ‘회사 성장성 및 비전 부족’(34.1%),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유지 어려움’(31.8%), ‘과도한 업무량’(31.7%), ‘무능력한 동료, 상사’(22.9%), ‘커리어 성장기회 부족’(19.6%), ‘고용 불안정성’(18%) 등이 꼽혔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관심 회사 내부 정보 파악’(42.9%, 복수응답), ‘연봉 협상’(37.6%), ‘경력기술서·포트폴리오 작성’(35.9%)이 우선으로 꼽혔다. 평균적으로 이직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며, 주로 활



▲ 사진=Shutterstock.com

용했던 경로는 ‘취업 플랫폼’(81.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검색 포탈’(24.2%), ‘주변 지인’(19.4%), ‘기업 자체 채용 홈페이지’(18.2%)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직을 시도했다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52.6%로 적지 않았다. 이직 시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역시 ‘연봉’(43.5%)이 1위였고, ‘워라벨’(14.2%), ‘기업문화’(13%)가 2,3위였다.

지난 10월 출생아 ‘역대 최저’



▲ 사진=shutterstock

10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24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적 감소 인원이 3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 2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736명으로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월간 기준 통계를 작성한 1981년 1월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2만421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7783명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사망자 증가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0월 누계 인구 자연 감소분은 3만3250명이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4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10월 누계 혼인 건수는 15만56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3.5건이다. 조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4.0건)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6건)이다. 10월 이혼 건수는 7703건으로 1년 전보다 17.6%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다.

전국 아파트값, 평당 2000만원 넘어

3.3m²당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지방 가격까지 끌어올린 모습이다. 올해 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40%나 올랐다.

지난 2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전용면적 기준)는 2148만원으로 올해 초(1월 1744만원) 대비 23% 올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0%(1247만원→1742만원)가 오른 인천이다. 이어 경기(32%, 1805만원→2382만원)와 충북(30%, 657만원→857만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은 18%(4104만원→4848만원)가 올랐고, 가장 저조한 상승률을 보인 지

역은 전남(711만원→776만원)이었다.

이는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GTX 등)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지방 아파트값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인천, 경기, 충북은 전국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MZ세대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 다양한 상승 요인이 전국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형 개발호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평균 아파트값도 상승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대통령·지방 선거가 아파트값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비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